

보도시점 4.14.(화) 조간 < 4.13.(월) 16:00 >

중동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화장품 업계 목소리 청취

- K-뷰티 글로벌 성장 주역으로서 그간의 노력에 감사·격려
- 중동 전쟁 피해 조기 극복을 위한 관련기관 협업 지원 강화 약속
-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 강화를 위한 중기부-식약처-수은-기보 MOU 체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4월 13일(월) 화장품 제조·판매 전문기업인 (주)아우딘퓨처스를 방문해 K-뷰티 관련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 중동 전쟁 관련 K-뷰티 기업 간담회 개요 >

- ▶ (일시, 장소) '26.4.13(월) 16:00~17:00, (주)아우딘퓨처스 (충북 충주)
- ▶ (참석자) 장관, 식약처장, 화장품 관련기업 (ODM, 중소브랜드, 원료, 용기, 물류 등)
- ▶ (주요내용) 중동 전쟁에 따른 화장품 업계 피해·애로사항 점검 및 지원방안 논의

K-뷰티는 해마다 역대 최대 수출 실적치를 경신하면서 글로벌 호황기를 누리고 있는데, 이러한 성장의 중심에는 중소 화장품업계 기업들의 숨은 노력이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중동 전쟁 장기화 등으로 인해 업계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피해 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방위적 지원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오늘 간담회를 주재한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지난해 미국의 관세정책에 이은 중동발 대형 악재에도 불구하고 K-뷰티 글로벌 성장의 숨은 주역으로서 곳곳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하고 있는 기업인들에게 감사를 전하면서, 기업 현장의 피해 현황과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의 대부분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원료, 포장재 등 원부자재 수급 차질과 단가 인상을 가장 큰 애로로 호소했다. 원료나 용기 제조기업들은 제품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화장품 ODM 기업들도 용기 등이 제때에 공급되지 않아 고객사 납기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한 물류 문제에 대한 지적도 많았는데, 물류 비용 폭등과 함께 운송 지연으로 인해 원부자재 수입은 물론 화장품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사태가 더 장기화될 경우 K-뷰티의 글로벌 경쟁력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았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해 나프타 위기품목 지정, 상승한 원부자재 가격 인상분의 납품대금 반영 여부 모니터링, 정책자금 만기 및 법인세 납기 연장 등 정부의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면서,

특히 “피해 중소기업들의 물류비 부담 경감과 수출 다변화 지원 등을 위해 수출바우처 1천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 2천 5백억원 등 추경예산도 편성하여 지난 금요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확정되었는 바, 이를 신속히 집행해 중소기업들의 위기 극복을 도와 나가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오유경 식약처장도 “최근 4월 3일 적극행정을 통해 화장품 포장재 원료 수급의 어려움으로 대체 포장재를 사용할 경우 표시·기재 사항을 스티커로 부착할 수 있도록 6개월간 허용하였다”면서,

“또한 우리 화장품 업계가 해외 진출에 어려움이 없도록 국내·외 인허가 정보와 글로벌 원료 규제 정보 등을 제공하고, 국가별 규제 관련 온라인 교육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에도 K-뷰티 업계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해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들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현장에서는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강화 등을 위한 중기부와 식약처, 수출입은행, 그리고 기술보증기금 간 업무협약식도 개최되었다. 이를 계기로 이들 기관은 수출기업 대상 금융지원 및 투자 확대, 수출기업 애로 해소 지원 등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중소기업의 화장품 수출 규모는 2022년 44.7억 달러에서 2023년, 2024년에는 각각 53.2억달러, 68.5억 달러로, 그리고 2025년에는 83.2억 달러로 늘면서 매년 평균 23% 가까운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다. 올해도 지난 2월까지의 수출액이 약 14억 달러로 이미 지난해 같은 기간의 수출액을 넘어서면서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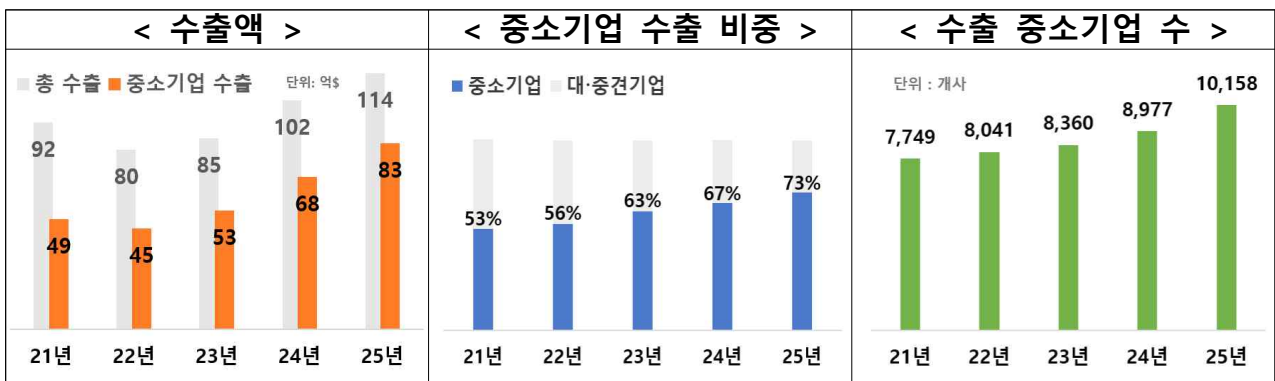
이러한 고공행진에 힘입어, 중소기업 수출 규모가 전체 K-뷰티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56.2%에서 지난해에 72.8%까지 대폭 확대되면서 중소기업의 K-뷰티 글로벌화 기여도가 눈에 띄게 커지고 있다.

수출 중소기업 수의 변화에서도 유사한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화장품은 지난 3년간 신규 진입기업 수가 가장 많은 품목으로, 2022년 8,041개이던 수출기업수가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1만개를 돌파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중소 화장품 기업들이 수출국가를 늘리면서 동시에 기존에 일부 특정국 중심의 수출 편중도를 점진적으로 줄여가고 있다는 점이다. 중동이나 CIS 등 신흥시장 개척에 속도를 높이면서 수출 국가 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200개를 넘어섰다.

특히, 중국, 홍콩 등 기존 중화권 위주의 수출 비중은 줄고, 북미, EU 지역으로의 수출액은 두 자릿수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수출 다변화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중소기업들이 세계시장 구석구석에서 K-뷰티 글로벌 성장을 주도적으로 견인하고 있다는 점이 곳곳에서 객관적인 수치로 입증되고 있는 셈이다.



| | | | | | |
|-------|---------------------|-----|-----|-----|----------------|
| 담당 부서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 책임자 | 과 장 | 임동우 | (044-204-7500) |
| | | 담당자 | 서기관 | 이화정 | (044-204-7501) |
| | | | 사무관 | 김영철 | (044-204-7505) |
| | | | 주무관 | 전대호 | (044-204-7507) |
| | | | 전문관 | 성지연 | (044-204-7514) |
| 담당 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 책임자 | 과 장 | 김지연 | (043-719-3401) |
| | | 담당자 | 사무관 | 이주경 | (043-719-3402) |
| | | | 사무관 | 김현숙 | (043-719-3404) |